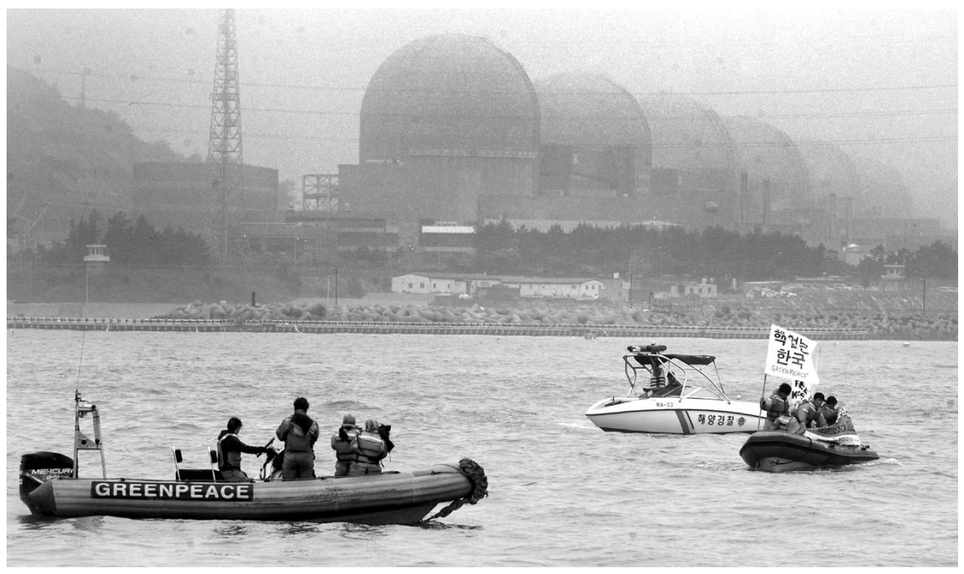
영광원전 앞바다에 온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 2호'

"원전은 근본적으로 위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라"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의 대표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무지개전사) 2호'가 원전 6기가 가동중인 영광 해역을 찾았다.

그린피스 회원 23명을 태운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13일 인천항을 출발해 14일 오전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발전소 앞 7.5㎞ 해상에 정박한 뒤 환경운동연합, 영광주민 등 60여명과 합류했다. 이들은 '핵없는 한국'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갑판에 내걸고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만 진정한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소속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 승조원들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14일 오후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발전소 6호기 앞 0.8㎞ 해상에서 작은 보트를 이용해 반핵 시위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탑승한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영광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 주민 신현모(49·영광군 법성면)씨는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영광 앞바다까지 온 만큼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그린피스가 소유한 3척의 배 중 하나다.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국적의 550t급 선적인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1989년 건조돼 22년간 태평양 전역을 순회하며, 석유 유출·희귀동물 멸종·참치와 고래 남획 방지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직접 목격한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원전 사고가 모든 생명과 환경·경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핵재앙에 관한 사진자료를 갖고 순회하고 있다.

레인보우 워리어 1호는 지난 1985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에 반대하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폭파됐으며, 그 뒤 재건된 2호는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전투함'으로 불리웠다.

레인보우 워리어 2호는 이날 영광을 시작으로 울진·월성·영덕·삼척 등 국내 원전 지역과 원전건설 후보지를 순회하는 '마지막 항해'를 한 뒤 퇴역하게 된다. 현재 건조중인 3호가 10월 말께 2호의 임무를 이어받아 전세계를 누빌 예정이다.

한편 1971년 설립돼 전 세계에 41개국 지부·35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그린피스는 오는 8월 한국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광=양수현기자 yang@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퇴역하는 레인보우 2호 한국에서 마지막 미션"

레인보우 워리어호 마이크 핀켄 선장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마이크 핀켄(Mike Fincken·44·사진) 선장은 14일 영광 원전 앞 해상에서 "레인보우 워리어 2호의 마지막 임무를 맡게 돼 기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임무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지난 3월 부산에 정박해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 현지에서 빠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린피스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한국이 그린피스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1971년 미국 핵실험 당시 한 인디언 추장이 앞으로 지구가 죽어가는 순간이 오고, 구원하는 전사인 '레인보우 워리어'가 나타난다고 예언한 것을 따온 것"이라고 밝히고, 퇴역하는 2호의 보관과 처분에 대해 "아직 노코멘트"라고 덧붙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그는 1996년 그린피스 탄생 25주년에 밴쿠버에 정박해 있던 그린피스 소속 모비딕 배에 오르며 처음 그린피스 일원이 됐고, 지난 2006년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장이 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참조기 대량양식 시대…3세대 수정란 양식 성공

참조기 대량양식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참조기 3세대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정란 생산은 지난 2005년 영광군 앞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참조기 어미를 이용해 6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앞서 수산과학원 영광지소에서는 지난 2009년 영광 앞바다에서 잡은 18㎝ 크기의 자연산 참조기를 채포, 이를 양식하여 다음해에 30만 마리를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 있다.

자연산 참조기는 포획할 때 부레가 파열되거나 수송 중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존율이 낮아 산란용 어미의 대량 확보는 물론 종묘 생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연산 참조기가 육상 수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길들이는 2세대의 순치(馴致) 과정을 거쳐 3세대 수정란 생산에 성공하면서 종묘 생산용 성어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개척됐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이달 하순까지 수정란 분양을 원하는 양식 어민들에게 수정란 20만개를 무상 분양하기로 했다.

한편, 수산연구소 영광지소 관계자는 "참조기를 상품화하기 위해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에 참조기 양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지난 5월 초 자연산 참조기에서 85만 마리를 부화해 이중 치어 12만 마리를 6월 말경 영광 앞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25~49세 핵심생산인구 작년 1953만명…첫 감소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생산가능인구(이하 핵심생산층)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생산층은 1953만8000명으로 5년 전 조사 때인 2005년(1990만5000명)에 비해 36만7000명 줄었다.

핵심생산층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이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핵심생산층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핵심생산층은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한국전쟁 기간에도 줄지 않았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 27.9%에서 1980년 31.4%로 30%선을 넘었고, 2005년 42.3%로 정점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40.7%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핵심생산층이 2005년 1002만8000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5년 만인 작년에는 984만6000명으로 다시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여자 핵심생산층도 2005년 987만7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969만3000명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생산층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다.

핵심생산층의 감소는 단순히 노동투입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서갑원 前의원에 3천만원 건넸다"

檢, 저축은행 비리 진술 확보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10월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에 주목, 서 전 의원에게 전달된 3000만원이 이 사업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차를 한 잔 마셨다거나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형선 회장은 민주화 인사로 아는 사이고 광주에서 만난 적도 있지만 사업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언론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 박 회장의 순천 별장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지금도 어디 현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123대 1

201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경쟁률이 123대 1로 지난해 115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7급 공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61명을 뽑는데 5만6561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행정직군이 364명 모집에 4만9958명이 몰려 137대 1에 달했고, 기술직군은 97명을 뽑는데 6603명이 지원해 68대 1이었다.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야외결혼식뷔페
칠순/팔순잔치·체육대회·야유회
종친회·기업체 각종행사
예약문의 파티외식산업
본사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www.ah-english.com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준비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 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인들(고소득자)은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뤼즈너블 합니다
(월10만원/매20분수업)
★호주 어학연수 · 취업 상담★
압구정 1:1
원어민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조선이공대학
2011년 소상공인진흥원
국비지원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조선이공대학 산학협력단과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가 공동 진행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원하는 무료창업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회차	일 자	교 육 과 정 명	교육인원
1	6.20~7. 1	월수익 1천만원 이자카야 주점 창업반	20
2	7.11~7.22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1인창조기업 창업과정	20
3	8. 8~8.20	남도향토음식 상품화와 성공창업과정	20

프랜차이즈 서비스 창업과 NAVER 카페 bxbx
정 원
- 각 과정별 20여명 선착순 모집
교 육 비
- 무료 (단, 현장학습비 5만원 별도)
특 전
- 교육 이수자는 중소기업청 국가정책자금(4.25% 변동금리) 우선지원대상 및 소상공인진흥원장 수료증 수여
교육문의 학과실 (062)230-8410
cafe.naver.com/bxbx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